

도내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가입대상 대폭 확대… 매월 10만원 저축 시, 3년 후 ‘1440만원+이자’ 수령 가능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인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입자를 모집하며, 기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

입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 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신청 접수를 시행하며, 3주차(8.1.~8.5.)는 5부제 관계없이 자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

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기업연령이 확대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내용으로는 본인 적립액을 월 10만 원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의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로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적립액 월 10만 원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로 수령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리며, 많은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 시민단체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제 폐지를”

“尹정부 보건의료정책, 공공의료 강화 정책 아냐” 염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과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는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일몰제에 따라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국민들은 17.6%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3일 전북도청 현관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1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왔음을 증명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

을 통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뉴스스

새만금잼버리 메타버스 구축… MZ세대에 대회홍보·홍미 유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전북 콘텐츠진흥원 업무협약…잼버리 메타버스 콘텐츠 시범 서비스 제작·운영 협력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김윤덕 국회의원, 이하 ‘조직위원회’)는 13일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와 잼버리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콘텐츠융진원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료 및 정보 공유, 잼버리 메타버스 콘텐츠 시범서비스 제작 및 운영, 전라북도 실감콘텐츠 및 진흥원 보유 시설·장비 지원 등이다.

특히,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잼버리 메타버스 콘텐츠 시범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위에서는 시장에 잼버리를 가장 체험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잼버리 메타버스는 MZ세대를 대상으로 23년 개최 예정인 잼버리 흥보가 주목적이며, 오픈 플랫폼을 사용해 올해 11월 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구성되는 콘텐츠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활동과정 및 문화체험 등 가상 체험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전북 대표 관광지를 흥보할 수 있도록 구현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모집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 전답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섬원 교수 역임
- 전주대학교 부교수 역임
- 전남대학교 부교수 역임
- 전남대학교 부교수 역임
- 전남대학교 부교수 역임
- KBS 1TV 아침나마다, MBC 1TV, JTBC,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가족 네트워크 · 솔昶교육사 · 속 대상대학
- 세미 “46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쁜 예쁜 웃고 웃고” 등

전답교수 김양옥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애간)

원광대학교(주, 애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애간)

김제스피치(야간)

우석대학교(주, 애간)

군산대학교(주, 애간)

남원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애간)

마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수강료 : 15만원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 제외
- 전달교수 : 문정태(마술지도사, 치매인지증인회 전주원장)
- 대상 : 9월 첫주 목요일 오후 7시
- 대상 : 9월 첫주 목요일 오후 7시
- 대상 : 010-8448-2570
- 대상 : 010-8448-2570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2022년 제2차 전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1.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총 657백만원, 22개사 내외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70백만원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587백만원
 - □ 업체당 지원금액에 따라 지원업체수는 유동적

○ (지원대상) 아래의 공동 ① ~ ②번 조건과 개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구분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종교 기관 전라북도에 본사, 지점, 공장을 등 개인사업자 및 법인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良거래처로 규제증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회계법 기업
- ◆ 불건전 영상개인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령기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등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 복제되는 경우
- ◆ 신청 시 등 사업을 수령(바우처 전액 보유) 중인 기업
- ◆ 신청한 최근 5년간 등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 제외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김제농협의 경제종합센터를 방문해 비료, 농약, 면세유, 기타 여리 농자재의 수급상황과 농가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기격 동향을 파악했다.

농자재 가격 상승 대응방안 모색

도 농축산식품국장, 동김제농협 방문… 가격·유통실태 점검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13일 동김제농협을 방문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상승한 농자재 가격 동향과 유통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료·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고 하면서 “우선 무기질비료와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단기·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 농가 경영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동김제농협은 영농 폐비닐 수거 해결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분해성 폴리 헬프 유기 면세유 지원을 검토했다. /김경수 기자

도내 코로나19, 재유행 단계 진입

13일 오전 7시 기준, 1050명 확진 판정

도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050명 전북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일 오전 7시 기준 1050명을 기록해 사실상 재유행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환자 수는 전일 991명에서 59명 증가한 10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484명, 군산 131명, 익산 121명, 정읍 31명, 남원 25명, 김제 30명, 원주 70명, 진안 13명, 무주 24명, 장수 8명, 임실 25명, 순창 9명, 고창 6명, 부안 50명 등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10월 초과하면 유행이 지속되는 것에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1일 기준 1.31을 나타내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현재 도내 재택 치료자 수는 3,633명이며, 중증환자 병상가동률은 17%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12,068명으로 도내 인구의 약 30%가 감염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하반기 유행할 것으로 보이며 규제보다는 자율실험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여름철 실내 난방기 기반으로 공기 전파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환기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유행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문화 정착이 절실히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지원내용

①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 문야원(건설기, 기술지원, 마케팅)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프로그램별 바우처 사용금액 한도 적용

【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분야	고도화 지원대상 프로그램	한도
건설기		